

# 시론

## 평화의 막뒤에서 전쟁의 칼을 간다

얼마전 남조선군부가 《국방개혁 2.0》 추진집결회의라는것을 벌여놓았다고 한다.

회의에 참가한 군부우두머리들은 《국방개혁 2.0》에 제시된 목표를 87% 달성하였다고 자화자찬하면서 계속 박차를 가하겠다고 떠들어댔다.

화약배가 물결 풍기는 이번 모의 판은 명백히 동족대결, 전쟁대결을 더욱 가속화하고 완비하기 위한 무분별한 호전적망동이 아닐수 없다.

그 무슨 《전방위적인 안보위협 대응》과 《선진화된 군대육성》, 《한국형3축타격체계》 구축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는 《국방개혁 2.0》은 표면상으로는 이른바 《정예강군》을 목표로 하고있지만 본

질에 있어서는 북침전쟁장비의 첨단화와 남조선군의 침략전쟁수행능력강화이다.

《적》후방에 대한 침투작전을 진행하는 《제2신속대응사단》의 능력강화와 산악려단의 전투력강화 등 이번 추진집결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그것을 실증해준다.

해군과 공군의 전력을 증강하고 확대개편하는 문제 등도 마찬가지이다. 남조선언론들은 2016년에는 해외 무기구매액이 1조원이었지만 2018년에는 4배가까이 올랐다고 하면서 현 당국의 군비증강은 이전 보수 《정권》시기를 통가한다고 전하였다.

그러면서 당국과 군부가 《강군》 문제를 광고하는것은 보수세력의 《안보위협》론을 의식한것이라고 보

도하였다.

단지 보수세력을 의식해서만이겠는가.

다른 한 언론은 남조선군의 무기 체계와 군사전략은 이미 미국에 심각히 종속되어있다, 당국이 《자주 국방》을 표방하면서 굴종외교에 매달리고있다, 말로만 《평화》를 주장하고 뒤에서는 칼을 갈고있으니 남북관계가 진전될려 없다, 미국산 첨단무기반입과 《한》반도평화는 절대 량립할수 없다는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평하였다.

《평화》의 간판을 들고 전쟁책동에 열을 올리는 남조선당국과 군부 호전세력의 이중적행태가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는 요인중의 하나라는것을 평한것이라고 본다.

실제적으로 남조선군이 외세와 아합하여 해내에서 침략전쟁연습에 광분하고있는것은 이미 그들이 조선반도에서의 침략전쟁의 하수인 노릇은 물론이고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실현의 전쟁대포, 돌격대로 적국 나르고있다는것을 말해주었다.

《국방개혁 2.0》의 추진집결은 이 해는 물론 앞으로도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외세의 전쟁머슴군으로 철저히 등갑하기 위한 위험천만한 모의판이라고 할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범 무서운줄 모르는 하루강아지의 무모한 객기에 불과하다.

정필

# 지뢰발

## 유현의

난감한 그 처지 가급히 해야 할지 쟁쟁에는 그 행태 예저름다 해야 할지 《국민의힘》 그 주위원 온통 지뢰밭 피하지니 피할테가 있나 나가자니 밭 디딜테가 있거나 하나

온갖 갈등으로 빚어진 혼란 이전 끝 《대선》후보 당대표 손잡았는데 잘못한이 누구? 용서한이 누구? 그걸 글에 누가 알아

화합은 했다지만 그 리유가 무언지 그러니 항간에 말들도 많지 -수술가위 배속에 넣고 췌만 화해!

그 《화합》 언체 돌변하여 소스라치게 리져버릴 지뢰가 되겠는지 그것뿐이면 오히려 숨이 나가련만 《공약》의 낚시로 아무리 낚으려해도 민심의 배척은 날로 커만 가고 그 열성으로 무성해진 여전히 《후보교체》론

난사는 난사로서 부지런히 뛰어봐도 뛰쳐나간 《책사》는 복귀거부 한집안의 폐거리들마저 사과껍질 벗기듯 취임없이 후보의 살가죽 벗기려드니 허 이것도 피할길 없는 지뢰아인가

여기도 저기도 지뢰투성이 짜증나는 지뢰는 한둘이 아니야 보수라는 한눈에서 기생하는 처지이지만 한쪽에선 지지불상승 이리다 《국민의 당》에 먹이감 떼올라 기본잡치는 그것들도 역시 지뢰이구말구

사방 지뢰밭속에 든 운명 어쩔런지 그거야 대낮에 손바닥 들여다보듯 너무도 변한 리치가 아닌가 이제 《국민의힘》의 피할수 없는 속명 지뢰에 산산조각난 《국민의힘》 종말이 보인다

# 증오는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는다

## 김영일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박근혜가 감옥에서 쓴 도서라지 독사는 죽게 돼도 독사라더니 반성이나 뉘우침은커녕 악녀의 추한 본색 달라지지 않았구나

뒤 재작기간 사심을 가진적 없더냐?! 누구에게 리진 췌저준 추한 일 없더냐?! 그럼 덕행 쌓아 감옥행이었다나 국민 위해 할수 있는 일 있다면 무겁게 받아들여 할것이라고? 아니 그게 실성이나 로망이나

《억울함》을 토해내는것도 역스러운데 감옥에 처넣었다 석방을 반대했다 한때의 한집안 폐거리들에게 누구라도 대가를 치를것이라 새된 양갈질로 으뜸장 놓았으니 그것 참 암투사의 독기는 갈데 없구나

저지른 죄악은 전면거부 차례된 징벌은 억울하다 췌치는 골 다 쇠진한 로마 들도 없는 악녀야 하다못해 요물만큼 반성이라도 담아 이렇게 책제목 달아야 정상 아니겠느냐 《별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바로 너때문에 췌저리게 당한 그 모든 아픔 채 아몰지 못했다 또다시 정치개입 헛꿈을 꾸는 박근혜 이제 다시 정치판에 치마바람 일으킨다면 그뎐 누구에게나 더는 참지 못할 격노가 뿜어져나오리라

감옥에서 벗어난 운명 다행히 여기고 조용히 죽음을 맞이할 차비나 해두는게 그중 현명한 여생의 선택이려니 감옥행에서 지옥행으로 지옥으로 가는 차표나 끊는게 어쩔런지

# 입 벌리지 말아

## 전명진

- 입만 열면 실언이다  
《돈 없으면 불량식품을》  
《주 120시간 로동》  
《손로동은 아프리카에서나》  
《장애인은 비정상인》...
- 사견에도 없고  
참고서에서도 찾을수 없는  
이 세계 인간들은 리해 못할  
《첨단》사고의 《신조어》가  
날마다 생산된다
- 입만 터지면 망언이다  
《전두환이 정치 잘했다》  
《민주화운동은 수입한것》  
《너성가죽부패지》...
- 검사 세월의 《갈잡이》  
보수패당의 《저승사자》가 되어  
자유, 민주, 인권을 란도질하려  
늑골대로 녹슨 독재의 칼을 버린다
- 폭언도 능사로다  
개는 나는 죽죽 췌는다더니  
보수라는 오물통에 기여들자마자  
대결악당에 전쟁독살이다

# 세치 혀가 긴 목을 감는다

바보에게는 침묵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말이 있다.

《1일1방언》으로 자기의 무식과 무능을 남김없이 뽐내고있는 《국민의힘》의 윤석열에게 주는 충고이기도 하다.

남조선인민들이 평한것처럼 제 잘나서 아니라 현 정치에 대한 민심의 불만을 기회로 삼아 정계에 머리를 들이민 《반사체》에 불과한 윤석열이다.

그런자가 날마다 실언, 망언을 거듭하다니 이제는 간담이 가부었는지 가소롭게도

《대북선제타격》이니, 《북은 주적》이니 하고 입에서 무엇이 나가는데도 분간 못하고 혀바닥을 놀렸다고 한다.

동족과 한사고 전쟁을 해보겠나? 불안하고 간들간들 한 이 땅의 평화마저 완전 깨버리겠나?

지나해 군복까지 걸치고 분계연선지대를 싸다닐 때부터 정신이 온전치 못한자라고는 생각했지만 동족대결명병, 전쟁광증도 이만저만이 아니라

력내 보수의 인물이라 나섰던자들도 감히 전쟁을 일으

에 담지 못했었다.

군대밥도 먹어보지 못한자가 《대북선제타격》의 기업을 토하고있으니 이발도 안난 아이가 빠다기추림을 하겠다고 설치는 꼴이다.

갈데가 없어 《국민의힘》에 기신기신 기여들어 친미 사대를 명줄로 삼고 동족대결에 기생하는 보수의 못된 생리부터 배운것 같다.

제 혀바닥을 놀려 쏘아낸 말이라도 내뱉은 말은 주어 담지 못하는 범이다.

아무리 외세에게 잘 보이고 보수의 지지표를 끊어

모으려는 수작일지라도 상대가 누구인가를 가려보고 혀바닥을 나불거리려 할것이다.

윤석열의 거저눈에는 공화국의 강위력한 자위적억제력이 그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것으로 보이고 전쟁이라는 말할 때를 아는자는 침묵할 때를 안다고 했는데 윤석열이 자기의 악당에 대해 반성하고 입부리를 함부로 놀리지 말아야 할것이다.

세치 혀가 긴 목을 감는 범이다.

백영환

오물통에 쓰레기가 담긴것이 응당한것처럼 오물통에 인간쓰레기들이 모여드는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얼마전 떨어지는 지지물로 꼴머리를 앓는 《국민의힘》에 《우군》이 찾아들었다고 한다.

《대통령》선거후보라는 윤석열의 무능과 실언, 그 주변의 부정부패는 물론이고 심화되는 당내부갈등으로 여기저기서 불명당하고 얻어맞아 된소나기 맞은 참새처럼 초췌해졌던 《국민의힘》이 환성을 올린것은 두말할 것 없다.

그 《우군》이라는게 누구들인가 하니 남조선사회에서도 우환거리로 배척받는 《탈북자》쓰레기들이다.

그런데도 저들을 지지한다고 해서 회색이 만연하여 인간쓰레기들과 그 무슨 《통합 및 후보지지

선연대회》라는 놀음까지 벌인것을 보면 《국민의힘》으로서의 삼년가물에 취오줌만금이나 반가웠던 모양이다.

방방은 물에 빠져도 개해염은 안친다고 했는데 그 무슨 《정정보우려는 속심이라는것이 세간의 평이다.

당, 악당에 하는 것거리란 남조선인민들이 극력 반대하는 빠라스포 같은 못된짓만 골라하는 인간쓰레기들을 현 당국과 상대후보보를 공격하는 참새부리, 돌격대로 내세

우려는 속심이라는것이 세간의 평이다.

정치 《정》자도 모르는 윤석열이 어쩔이 크게 동족을 향해 《선제타격》이니, 《주적》이니 하고 혀바닥을 나불거리는데 여기에 인간추물들의 《안보》, 《인권》라쩌까지 더 보태면 부치는데 평파리치는 격이 아니겠는가 하는것이 《국민의

힘》의 속심이고 계산법이다.

다른 하나는 당장 급한 지지르때문일것이다.

저희들을 지지했던 청년들도 떠나가고 보수지역 민심도 등을 돌리니 머리수를 하나라도 더 채우고 지지표 한장이라도 더 끊어모아야 하는것이 《국민의힘》의 궁색한 형편이다.

그러니 《탈북자》쓰레기면 어떻고, 인간추물이면 또 어떻단 말인가.

《국민의힘》 역시 《오물정당》, 《부정부패당》, 《막말베실당》 등 추악한 오명으로 이름날리는테야.

그래서 남조선민심도 《국민의힘》과 《탈북자》쓰레기들의 역겨운 통합을 두고 신랄히 조소하고 비난하고있다.

오물통에 쓰레기가 더해졌다고,

김정혁

# 단평 오물당+쓰레기

수》를 운운하던것들이, 《보수대통합》을 한다고 북작대던것들이 고작 《탈북자》쓰레기들과 한이불속에 틀게 되었으니 《국민의힘》의 값이 그 정도였던 모양이다.

아마 리숙을 위해서는 벼룩의 간도 빼먹을 《국민의힘》것들이 무력하고 통합놀음을 벌리지는 않았을것이다.

요즘 남조선에서 윤석열의 처 김건희의 《7시간록취록》이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

《7시간록취록》은 어느 한 기자가 김건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나온 대화내용을 기록한것인데 거기에는 김건희의 개인적 정사뿐 아니라 사회적 정적으로 예민한 문제점들에 대한 발언들도 들어있다고 한다.

실례로 정치인들의 성추행문제, 《국민의힘》의 내부문제, 지어 자기들이 권력을 잡으면 누구는 무사치 못한다, 윤석열의 선거활동을 도와주면 1억원을 주겠다는 등으로...

한 녀성이 경망하게 내뱉은 소리가 아니라 야심찬 속심을 그대로 표출한것으로 하여 조선봉건시대의 《수렴정치》를 방불케 한다고 여론들은 평하고있다.

남조선의 각계층도 박근혜-최순실추문사건을 떠올린다고 하고있다.

아무런 공적도 없는 일개 무당인 최순실이 권력자인 박근혜를 조종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국정을 통단한 특대형추문사건. 오죽했으면 당시 남조선민심이 박근혜 《정권》을 《현대판 수렴정치》로 움직이는 《허수아비 정권》이라고 개탄했겠는가.

그런데 보수패당속에서 또다시 이러한 특대형사건이 재현되고있는것이다.

하기에 남조선의 각계에서는 김건희와 그의 발언을 놓고 《갈길 잃은 (국민의힘)》을 흡수한 제2의 최순실, 《김건희관 국정통단재현》 등으로 비난조소하고있다.

이번에 공개된것은 《7시간록취록》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남조선언론 《서울의 소리》는 《7시간록취록》원본에 김건희가 《일반주민들은 바보》, 《내가 점을 좀 볼줄 아는데 우리가 청와에 간다》, 《윤석열은 내가 거들어주어야 제대로 하는 바보이다》 등의 정말 충격적인 발언들이 많다고 폭로하였다.

녀련네의 치마자락속에서 《부양》되는 윤석열, 그런자후보로 내세울수밖에 없는 《국민의힘》, 정말 가련하다고 해야 할것이다.

권력의 병거지를 췌보지도 못하고 제2의 《503》이 될 윤석열과 《신적매》로 락 인되어 다시 음지에 기여들어 가게 될 《국민의힘》의 앞날을 예고하는 《7시간록취록》이다.

본사기자 주 광 일

# 정초부터 일어나는 수많은 사고들이 시사해주는것은

년초부터 남조선에서는 각종 사건사고들이 연발하고있다.

실례로 남조선공공의 전수기들이 비행도중 추락하거나 불시착할것, 서울에서 부상으로 달리던 열차가 탈선할것, 전라남도 앞바다에서 선박들이 충돌하여 배가 전복된것, 경기도에서 건설중에 있던 건물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한것, 전라남도 광주에서 건설중이던 건물의 외벽이 붕괴된것 등이다.

그로 인한 인명피해도 크다고 한다.

문제는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련이어나온 각종 사건사고들은 결코 우연이거나 그 누구의 실수에 의한것이 아니라 반인민적인 정치가 가져온 인재, 악재라는데 있다.

지난해에 일어난 허다한 산업재해만 놓고보아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평택항에서 일하던 청년이 300kg짜리 철판에 깔려 목숨을 잃고 울산조선소 선박타항에서 일하던 로동자가 수심m아래로 떨어져 죽고 현대제철 당진제

철소 로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워 사망하는 등 지난해 남조선에서는 산업재해가 그렇게 없었다.

그러나 남조선의 현 당국은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대책을 세운다고 골잡이 위렷지만 그 식이 장식이었다.

특히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만든다고 소리는 요란했지만 이런저런 《조진》에 의해 1년동안 실행되지 못하였으며 《법》마저 건설업체나 기업들의 눈치를 보면서 조절하다니 《누데기법》으로 취급받고있는 상태이다.

현 당국이 년초에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흰소리를 쳐왔지만 련발하는 사고는 사람들에게 불안과 당국과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분노만 더해주고있다.

《남조선은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발생률과 사망률에서 세계 1위이다》, 《해마다 2000여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있는데 이것은 3시간에 1명정도가 각종 산업재해로 사망하는것으로 된다》, 《남조선이 (재해공화국)이



연상시키는 《7시간록취록》 국정통단사건을